

PKM GALLERY

이근민 «장면이 되기 전»

Keunmin Lee: *Before It Becomes a Scene*

June 10–July 25, 2026 | PKM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7길 40 | T. 02 734 9467

- ▶ PKM 갤러리,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주목받는 이근민 개인전 «장면이 되기 전» 개최.
대형 신작 및 드로잉 등 총 23점 국내 최초 공개.
- ▶ 질병과 환각이라는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예술의 에너지로 승화.
- ▶ ‘장면 ^{Scene}’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날것의 생명력을 통해 해방감과 카타르시스 선사.

PKM 갤러리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이근민 ^{b. 1982}의 개인전, «장면이 되기 전 *Before It Becomes a Scene*»을 6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근민의 PKM 갤러리 첫 개인전이자, 그가 2023년부터 제작해 온 미발표 작업들을 집약하여 선보이는 자리다. 약 3미터 높이의 대형 회화를 포함한 페인팅 작업과 드로잉 연작 등 23점의 신작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이근민은 25년 전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병명을 부여받고 입원 생활을 하던 당시 두 가지 경험을 하였다. 하나는 진단의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환각의 경험이다. 그는 문명사회가 효율성을 위해 규정한 질병 코드가 인간 본연의 모양을 재단하고 분류하는 방식에서 폭력을 느꼈다. 동시에 이름 없는 존재들, 예컨대 파편화된 인체, 생물체였던 무언가, 날것, 상처 등이 출몰하는 환각을 보았다. 그는 이러한 고통의 경험과 아픈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사회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해 온 존재들을 화면 위로 기꺼이 소환한다.

이번 개인전 «장면이 되기 전»은 이근민이 포착한 한 꺼풀 걷힌 인간의 진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장면 ^{Scene}’이란 일련의 의도나 설정이 개입된 상황을 뜻한다. 작가는 그와 같이 설정되기 이전의 상태, 즉 자신이 겪은 환시와 환후가 의학적, 사회적으로 병의 증상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이전의 모습을 그려 낸다. <Organic Plate>, <Connected Body>, <Psychiatrist’s Head> 등의 제목이 암시하듯, 작업의 주요 소재는 그가 환각 속에서 목격한 해체되고 흩어진 신체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를 단순히 1차원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상적인 감각과 뉘앙스를 끈질기게 떠올리고 추적하여 하나의 정교한 연속체로 종합해 냈다. 그렇게 완성된 화면 위 쏟아지고 부대끼는 폭발적 에너지는 작가의 진실한 내면 풍경이자, 자신을 구속하던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그 자체일 테다.

이근민의 회화에 등장하는 근육과 장기, 혈흔의 형상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나와 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하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PKMGALLERY

붉고 따뜻한 색조는 피나 살을 탐닉하는 작가의 직관적인 본능인 동시에, 인간과 생명에 대한 가장 숨김없는 메타포이다. 밑그림이나 계획 없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자동기술법 ^{Automatism} 으로 완성된 드로잉 연작 <Refining Hallucinations>는 사회에서 밀려난 원시적이고 불온한 생명체들을 펜 선으로 등글게 감싼다. 사회가 정한 규격에 맞춰지기 전, 우리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카타르시스를 마주하게 할 것이다.

한편, 6월 10일 열리는 전시 오프닝 리셉션에는 이근민의 원맨 밴드인 고트 앤 멍키 ^{Goat and Monkey} 의 IDM 음악이 재생된다. IDM ^{Intelligent Dance Music} 은 사운드의 질감과 구조에 집중하는 일렉트로닉 뮤직의 한 장르로, 작가의 미술 작업과 닮아 있어 전시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근민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200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울, 뉴욕, 파리, 베를린, 말뚝 등지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열었다. 2016년에는 뉴욕 파이오니어 워크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2022년 스페이스 K의 개인전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를 통해 동시대 미술 신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스페이스 K, 마드리드 콜렉시온 솔로, 박서보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다.